

## 〈현몽쌍룡기〉 연작의 〈소현성록〉 연작 수용 양상과 서술시각

허순우\*

〈차 례〉

1. 서론
2. 〈현몽쌍룡기〉 연작의 〈소현성록〉 연작 수용 양상
  - 2.1. 허구화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수용
  - 2.2. 공간적 배경인 자운산의 변용
  - 2.3. 화소의 계승과 재편
3. 수용 양상을 통해 본 〈현몽쌍룡기〉 연작의 서술시각
4. 결론

### 〈국문초록〉

국문 장편소설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작’이나 ‘파생작’의 경우를 제외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이 연관이 있고 또 전작에 대한 독서의 결과를 어떤 측면에서 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편이다. 그러므로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일은 국문 장편소설의 관련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 수집의 일환으로써 의의가 있으며, 대상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작업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현몽쌍룡기〉 연작은 〈소현성록〉이라는 제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소현성록〉 연작의 인물과 배경, 사건 등을 수용하고 변용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작품을 창작경우로서 직접적인 파생의 관계에 놓여 있지는 않지만 기존 작품을 새로운 작품 창작에 활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창작 방법은 독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전작을 떠올리게 하고 두 작품을 견주어 읽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독서를 유도하고, 새로운 작품의 작가이면서 전작의 독자이기도 한 작가의 생각을 작품 내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소설 비평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소현성록〉 연작으로부터 역사적 허구인물인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소황후를 차용하여 서사를 확대하는 과정에 활용했으며, 도덕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으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도덕적 판단보다 가문의 안위를 우선에 두어 도성과 거리를 두고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추구했던 소씨 가문을 대표하는 자운산이라는 공간의 속성을 일면 이어받으면서도 배타성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하기도 했다. 방일(放逸)한 남성 인물의 팔에 앵혈을 찍는 것과 같은 흥미 위주의 화소와 함께 본격적인 18세기 국문 장편소설에서는 보기 드문 첩 두기 화소를 수용하고 능력위주의 가권 계승을 옹호하면서도 다양한 가권 계승의 양상을 제시하여 독자들을 설득하려 했다.

수용과 변화의 지점들은 <현몽쌍룡기> 연작의 서술 시각을 대변하는 것들인데,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소현성록> 연작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었던 사건들을 수용하여 서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의미나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기도 했으며,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개연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했다. 교훈을 나열하는 식의 구성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건이 다른 하나의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고안했으며, 역사적 사실 또한 허구적 작중 인물이 경험하는 사건과 연결되도록 서술하고 있었다. 동시에 변화하는 국문 장편소설 독자층의 의식을 반영하여 가권 계승 등과 같은 문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다양한 사례 제시를 통해 독자를 설득하려 했으며, 일부일처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성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원비(元妃)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나갔다.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초기 국문 장편소설보다 노골적이지 않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려 시도했으며, 소설의 교훈서로서의 측면과 함께 오락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던 것이다.

**주제어** <현몽쌍룡기>, <소현성록>, 수용양상, 서술시각, 시·공간적 배경, 화소, 서사의 확대, 개연성, 역사, 허구

## 1. 서론

조선시대 국문 장편소설의 경우 창작자가 선행하는 작품들을 참고하고

인물이나 사건을 수용·변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연작(連作)이나 파생작(派生作)을 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전작의 인물과 가계(家系), 사건 등을 계승하고 후편과 파생작 등에 대한 공지를 작품 내에 서술함으로써 작품 간의 연관 관계를 분명히 하고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연작이나 파생작처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작품 창작을 위해 기존 작품의 배경이나 인물·사건 등을 수용·변용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처처갈등, 응서갈등 등과 같은 단위담의 단순한 반복과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투색지연의> 연작<sup>1)</sup>이 선행하던 작품들의 인물과 사건 정보를 수용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품 내에 수용된 작품들의 파생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sup>2)</sup>처럼, 직접적인 파생의 관계에 놓여 있지는 않지만 기존 작품을 활용해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볼 <현몽쌍룡기> 연작<sup>3)</sup>은 <소현성록>이라는 제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소현성록> 연작<sup>4)</sup>의 인물과 배경, 사건 등을 수용하고 변용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작품을 창작했는데, 위에서 살펴본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창작 방법은 독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전작을 떠올리게 하고 두 작품을 견주어 읽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 1) <투색지연의> 연작은 <투색지연의>-<여와전>-<황룡몽환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여와전> 연작으로 불렀으나, 본 논문에서 연작을 명명함에 있어 '전편의 제명+연작'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 이와 같이 지칭했다.
- 2) <투색지연의> 연작을 기존 작품의 파생작으로 볼 수 없다는 논의는 지연숙, 「<여와전> 연작의 소설 비평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1 참조.
- 3) <현몽쌍룡기> 연작은 <현몽쌍룡기>와 <조씨삼대록>을 가리키며, <현몽쌍룡기>는 18권 18책 한국학 중앙연구원본을, <조씨삼대록>은 40권 40책 서강대본을 분석 텍스트로 한다.
- 4) <소현성록> 연작은 <소현성록>과 <조씨삼대록>을 가리키며, 본 논문에서는 15권 15책 이대본 <소현성록>을 분석 텍스트로 한다.

독서를 유도하고, 새로운 작품의 작가이면서 전작의 독자이기도 한 작가의 생각을 작품 내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소설 비평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현몽쌍룡기> 연작을 <소현성록> 연작과 연관지어 논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위담과 같은 포괄적인 차원의 유사성 보다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배경이나 인물, 혹은 사건(화소) 차원에서의 유사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현몽쌍룡기> 연작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다. 물론 <현몽쌍룡기> 연작은 <소현성록> 연작에서만 화소를 수용하여 새로운 소설 창작의 재료로 삼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작품을 창작하기 이전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가 읽었을 여러 작품 가운데 한 편인 <소현성록> 연작을 통해, 국문 장편소설의 작가이자 독자인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어떤 부분에 호기심을 느꼈는지, 또 어떤 부분 변화를 주기 원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몽쌍룡기> 연작에 반영된 작가의 서술시각의 일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이제 두 작품을 대상으로 시·공간적 배경과 인물, 화소의 수용과 변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현몽쌍룡기> 연작에 나타난 작가의 서술시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문 장편소설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작’이나 ‘과생작’의 경우를 제외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이 연관이 있고 또 전작에 대한 독서의 결과를 어떤 측면에서 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편이다. 그러므로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일은 국문 장편소설의 관련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 수집의 일환으로써 의의가 있으며, 대상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현몽쌍룡기> 연작에 관한 이해는 물론이고, 국문 장편소설 간의 영향관계와 창작 방식이나 서술 시각 등에 관해 좀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2. <현몽쌍룡기> 연작의 <소현성록> 연작 수용 양상

### 2.1. 허구화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수용

<소현성록> 연작의 시간적 배경은 송(宋) 태조(太祖)대에서부터 인종(仁宗)대까지이고, <현몽쌍룡기> 연작의 시간적 배경은 송 진종(眞宗)대  
에서부터 신종(神宗)대까지이다. 동일한 인물이나 사건이 등장하더라도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에는 <현몽쌍룡기> 연작이 <소현성록> 연작  
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송 진종대에서  
부터 인종대까지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역사와 일치하는 인물이나 사건이  
등장하는 경우는 두 작품의 영향관계를 증명하는 직접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소현성록>에는 황제에 관해서는 송사(宋史)와 동일하게  
서술하면서 그들의 황후에 대해서는 역사와 다르게 변형하여 서술하는  
부분이 있다. 송사에는 진종의 황후인 장헌명숙황후(章獻明肅皇后)가 어  
려서 고아가 되어 외조부 집에서 자라다가 진종의 황후가 되었다고 기록  
되어있는데,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소현성과 의남매를 맺은 윤부인과  
유학사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장헌명숙황후(유황후)가 된 것으로 서술  
하고 있다. 또 송사(宋史)에 따르면 인종의 비(妃)인 곽황후가 폐위된 후  
이어서 조황후가 책봉되는데,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곽황후와 조황후  
사이에 소황후라는 인물을 설정하고 이 소황후가 소현성의 막내딸인 소  
수주라고 설명한다. <소현성록> 연작에서 소황후는 인종의 황후 간택 시  
곽황후, 양미인 등과 함께 간택되었으나, 자신의 딸이 황후가 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관상 보는 자에게 뇌물을 주어 곽씨를 황후로 삼게 한 곽  
시랑의 계교로 인해 한동안 귀비로 지내게 되는 인물이다.<sup>5)</sup>

12년 동안 귀비의 자리에 있으면서 소수주는 투기가 심한 곽황후의 뜻

5) <소현성록> 14권 8-9면.

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공손히 행동하며 황제의 총애를 피하려 애 쓴다. 소수주의 이런 겸손한 행동을 황제와 궁인들이 칭찬하자 곽황후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독이 든 술잔을 권해 소수주를 해하려 하기도 한다. <소현성록> 연작에서 곽황후는 투기가 심한 인물로 그려지는데, 역사에 곽황후가 상미인(尙美人)과의 분쟁으로 인종의 목에 상처를 내어 폐위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소설 속에서도 양미인과 상미인을 투기하여 그들을 해치려 하다가 그것을 말리는 황제를 밀쳐 목에 상처를 내고 심지어 두 손으로 황제의 뺨을 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 결과 곽황후는 폐위되고 소수주가 황후가 된다. 황후가 된 소수주는 4자 2녀를 낳고 인종 황제와 20여 년 동안 화락하다가 병들어 사망하게 되는데, 작품 안에서 소황후가 하는 발화의 내용은 대부분 자신만을 편애하지 말고 곽황후와 미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투기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황후의 발언을 통해 황제가 균등하게 총애를 하지 않을 경우 투기하는 마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긴 했지만,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투기가 심한 곽황후를 부각하여 소귀비, 양미인, 상미인 사이의 갈등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 황실에서 발생하는 투기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 황제의 행동에 대해서는 “인종이 선대의 삼년을 모처럼 다시 정궁으로 연락하시나 년귀 츠시고 춘정이 화창하시니 드디어 여러 후궁을 통헿하시고 덩궁의 즈로 오디 아니시니 곽휘 크게 분노흐야 불안흐미 즈 ” 니 샹이 즈못 깃거 아니”<sup>6)</sup>하는 것으로만 서술하여 그 원인을 진지하게 황제의 행동에서 찾고 있지는 않다.

역사상 허구 인물인 소황후는 <현몽쌍룡기> 연작에도 등장하는데 이는 <현몽쌍룡기> 연작이 <소현성록> 연작으로부터 역사적 허구를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작품 속 소황후의 모습은 <소현성록>

6) <소현성록> 14권 10면.

연작의 소황후 모습과 차이가 있다.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인종이 <소현성록> 연작에서보다 더욱 색을 탐하는 인물로 묘사된다.<sup>7)</sup> 광황후의 폐위 사건 이전에 인종이 허난교라는 요인에게 홀려 정궁을 박대하고 지속적으로 후궁들과 즐기는 모습을 자세히 제시하여 황제의 실덕을 묘사하고 황후의 투기가 나름의 이유를 지니고 있음을 설명한다. 난교는 조유현을 시기하는 악인 설강이 계교를 써서 궁에 보낸 인물이다. 난교로 인해 조유현과 설강은 황제 앞에서 언쟁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은 황제의 실덕을 간하던 조유현이 귀양을 가게 된다.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정궁을 박대하는 인종의 태도에 대해 조유현 뿐 아니라 조무와 조성 등도 모두 간언을 하지만 인종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를 작품 내에서는 난교가 황제에게 약을 주어 홀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황제가 총명을 잃게 되는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후궁들끼리도 쟁쟁하게 하고 정궁을 원망하여 황제에게 정궁을 모함하는 일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있다. 본래도 투기하는 마음이 있었던 광황후는 자신을 모함하는 후궁들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 그들을 난타하게 되고 그 와중에 황제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게 된다. 그리하여 광황후는 폐위되고 소귀비를 선인황후로 봉하게 된다. 그런데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광황후가 간택되었다가 투기로 인해 폐위되고 소귀비가 황후가 되는 실제 긴 시간을 담은 사건은 5면 정도의 분량으로 간략하게 서술하고 대신 난교로 인해 설강과 조유현이 대립하는 장면, 귀양을 가게 된 조유현을 소황후가 대변하는 장면 등을 확대 서술하고 있다.

<소현성록> 연작이 송사(宋史)와 허구를 결합하고 그 사이에 소씨 가

7) 어시의 인종 황제 난교에게 침익하샤 정궁의 은이 쇠하고 여러 후궁이 정총하니 궁내 요란흔지라 조상국이 즈로 간하고 진왕이 아르드르시게 극간하여 낭인의 정총대 절이 상의를 거스리느니라 상이 가장 괴로이 너기시더니 <조씨삼대록> 5권.

문의 일원인 소수주를 황후로 만들어 넣음으로써 가문의 번영과 영광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공을 들였다면, <현몽쌍룡기> 연작은 이미 <소현성록> 연작에서 만든 허구를 차용하여 그 사건을 작중 인물인 설강과 조유현의 갈등의 배경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래는 아내 정씨를 사이에 두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립하던 조유현과 설강이 정치적으로도 대립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으며 '투기'에 대한 언쟁을 통해 작가의 투기에 대한 시선을 노출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조유현이 아내들과 화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정 내적 차원의 모해에서 넘어서서 조유현을 정치적으로 유배시킴으로써 또 다른 악인인 강옥연과 설강이 결합하여 조유현의 부인인 정씨와 이씨를 해치는 이야기로 서사를 확장시킨 것이다. 그 결과 사건은 더욱 확대되어 선인형 여성 인물들의 고난과 극복에 대한 서술 분량이 <소현성록> 연작에 비해 많아졌으며,<sup>8)</sup> 조유현이 정·이씨 외의 다른 부인을 만나게 되는 계기를 인과적으로 제공하게 되기도 한다. 서사의 확대 과정에서 역사적 허구 인물인 소황후는 또 다른 악인의 모해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한 조유현의 부인 남씨를 황궁에 머물게 하여 자신의 딸인 혜선공주의 사부로 임명함으로써 후에 조명천과 혜선공주가 혼인을 하는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소현성록> 연작에서 소수주의 황후 책봉은 소씨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강했으므로 황후로 책봉된 이후 소황후의 행적에 대한 서술은 거의 없었다. 또 황후 책봉에 관한 내용을 <소현성록> 연작의 끝 부분에 서술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삼지 못했고 앞서 진행되던 다른 사건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듯한 인상

8) 분량이 많아진 것은 <소현성록>보다 <조씨삼대록>의 작품 분량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난을 겪는 인물이 한 명에 그치지 않고 여러 인물들이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사건이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분량의 확대가 아니라 서사의 확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저 주었다.<sup>9)</sup> 그런데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소황후라는 인물을 전작으로부터 수용하면서 <소현성록> 연작과 달리 서사적 긴밀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구성에 주의를 기울인 것이다.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소현성록> 연작에 나온 허구 인물을 차용함으로써 <소현성록> 연작을 읽은 독자들이 두 작품을 비교하여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새로운 소설 안에서 어떻게 수용, 확대, 변경되는 지를 찾아보며 읽는 과정은 독자에게는 독서의 흥미를 높여주며 가독성을 높여주는 요소가 될 것이고, 작가에게는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의도성 있게 부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을 것이다.

## 2.2. 공간적 배경인 자운산의 변용

<소현성록> 연작이 삼대륙계 국문 장편소설들과 차별적인 분위기를 지닌 작품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한 가지 요인은 작품의 공간적 배경 설정과 그것에 대한 묘사에 있다.

화설 변경 남문 밧 스십 니의 혼 뵈히 이시니 호왈 즈운산이오 쥬회 삼빅 나라 산형이 풀당 고즌 듯ㅎ였는디 폭뢰 전후로 솟는 곳이 칠십여 체라 잔완이 흘너 산 전면의 모다 덩현이 되니 못 듀회 십여 리오 김희 일천 척이라 골은 와농담이라 못과 산을 남북으로 두르고 그 가운데 혼 골이 이시니 골은 장현동이라 쥬회 빅 니오 평탄ㅎ기 뉴리로 밀턴 듯ㅎ더라 스면의 창창녹둑

9) 선행연구에서도 <소현성록>의 소황후 책봉과 관련하여 “작품이 전개될수록 가문 내적 갈등은 약화되고 가문외적 갈등은 심화되게 구성하여 소부의 가문 대내외적 완성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것만으로 소부의 이야기를 끝내도 무리가 없다. 소부는 이미 대내외적 안정을 이루었다. 그런데 작가는 이야기를 더 보태어 소부의 안정과 완성을 극대화시킨다.”(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p.87.)고 보았다.

과 낙낙당송이 들렀고 그윽한 경티와 비상한 풍식이 무릉 별세계오 봉니 방  
당이라 즈운산 뉘희 천여 당이오 봉만이 열둘히라 텃디 초판홀 적 들근 경괴  
와 령이흔 기운이 영기여 외농담과 즈운산의 즈겨 괴이히미 다른 산천과 크  
게 꺾디 아니히더라 <소현성록> 1권.

인용문은 ‘소승상 본전 별서’를 제외할 경우 <소현성록> 연작이 시작  
되는 첫 부분이다. 다른 삼대록계 국문 장편소설들이 서두를 주인공 가문  
의 내력 소개로 시작하는 것과 차별된다. ‘자운산’ 공간을 공들여 묘사했  
기 때문에 독자는 ‘자운산’ 하면 <소현성록>의 소씨 가문을 떠올리게 되  
는데, 특히 초기 국문 장편소설들은 서로 밀접한 영향관계에 있으므로 ‘자  
운산 소부’라를 명칭을 두루 썼던 것으로 보인다. <설씨이대록> 등에서  
도 ‘자운산 소부’라는 말은 소현성가(家)를 지칭하는 말이며 <소현성록>  
을 읽고 쓴 가사의 제목을 <자운가>라고 한 예를 볼 때도 <소현성록>  
연작은 독자적인 공간 설정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sup>10)</sup>

<현몽쌍룡기>연작의 전편인 <현몽쌍룡기>나 후편인 <조씨삼대록>  
은 모두 선조의 내력을 밝히는 것으로 소설이 시작되기 때문에 서두에서  
부터 공간을 묘사했던 <소현성록> 연작의 구성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  
다. 대신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악인들의 모해로 유배를 갔다가 해배  
되어 돌아오던 조유현이 풍수에 대한 감이 있어서 ‘운산’이라는 공간을 장  
래의 은거지로 삼아두는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자운산’과 유사한 ‘운산’이  
라는 공간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인다.

①임의 역미 나눈드시 도라오는 마음이 슬긋트니 녹칠 일 만의 남문 밧  
스십 니의 쥬인히니 이곳은 벽운산 취현동 은션항이라 산천이 절승하고 만  
학 괴봉과 층암 절벽이 좌우의 짝근 듯하고 그 가운데 평안한 들이 십여 리

10) 지연숙, 「<소현성록>의 공간 구성과 역사 인식」, 『한국고전연구』 13, 2006.

나 하고 광활 심수하여 별유선계오 봉리방장이라 근처의 인개 즐비한디 다  
촌민이오 스테후의 복거흔 재 업더라 조성이 만시 신이하여 산택의 아니 신  
묘흔 곳이 업스니 이곳을 보고 깃거 헤오디 취현동은 선항이라 내 뜻의 암합  
하니 군친귀 절홀 뜻이 급하나 아직 이곳의 머물고 군부귀 글을 읊너 쇼회를  
고하리라 …… 경개 절승하고 죽님 송벽의 프른 빗치 설중의 홀노 석석하니  
조상세 산천을 둘러보고 복거홀 곳을 갈히고 마음이 상쾌하여 헤오대 군위  
만일 허하시면 만행이오 그러치 못하여도 이곳은 발이지 못하리라 하더라  
<조씨삼대록> 10권.

②양광효 쇼효문 영운거 일개 모다 비린의 상중하고 철슈문 윤선휘 조선  
경 등이 동서로 집을 년하여 하니 장원이 십리의 년하고 식문이 곡중의 둘러  
시니 압흔 슈천주 슈양은 춘풍의 춤추고 뒤호로 즐지은 오죽은 창고 이스시  
의 프른 빗칠 씌여 절개를 자랑하니 의연이 진씩 도연명의 그림 갖고 진스  
명광의 동산 꺾튼지라 화계의 만화는 스시의 봄이 니르고 산상의 폭포는 구  
술쫓치 구으니 화계의 니슬이 되는지라 벽운산 쥬회 스십여리오 산형이 괴  
려하여 룡이 서리고 봉이 업던 듯 빅호청룡이 완연이 전후의 가즈며 산하광  
야 너르고 평탄하미 옥을 다드마며 류리를 밀쳤는 듯한 곳이 또 삼십여리라  
곡중의 선학동이 웃듬골로 좌로 장현항이오 우로 독현촌이라 독현촌은 쇼효  
문이 복거하고 장선항은 양광회 복거하니 그 가운데 각각 쇼 디명이 이셔  
윤슈동 선학동 장현동이 이시니 설쳐스 정승상 정혹스 윤선휘 등이 다 각각  
복거를 삼으니 조선경은 문계를 짜라 은성항의 집을 년하여시니 일만 광야  
의 명인 현상이 버러시나 그 중의 제죄 성만하미 더은 고로 글을 긋쳐 조선  
동이로 촌민이 일크더라 <조씨삼대록> 37권.

인용문 ①은 조유현이 유배에서 돌아오는 길에 ‘운산(벽운산)’을 은거  
지로 정하게 되는 부분이다. 상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남문  
밖 40리에 있는 산으로서 봉래산과 방장산 등 신선이 사는 곳을 떠올리게

한다는 구절도 그렇고, 연못이 들로 바뀌었을 뿐 그 둘레가 십 리 정도 되고 유리를 밀친 듯 평탄하다는 표현이 <소현성록> 연작의 ‘자운산’과 매우 유사하다. 인용문 ②는 조무와 조성의 손자 대인 명천, 명윤 등만이 경사에 남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은 ‘운산’으로 이주해서 또 하나의 공간을 형성하며 살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조씨 가문 사람들이 은거할 때 친분이 있는 다른 가문의 인물들도 함께 ‘운산’에 은거하여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운산’을 ‘벽운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운산’에 대한 공간 묘사가 ‘자운산’과 유사하고, 또 ‘장현동’과 같은 구체적 지명이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이 ‘운산’이라는 공간은 <소현성록>의 ‘자운산’을 차용한 것이 분명하다.<sup>11)</sup>

그런데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소현성록> 연작에서와 달리 운산이 처음부터 조씨 가문의 세거지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 이후의 은거지로 이야기 된다. 은거지로서의 운산이 작품에 처음 등장하는 것도 황제가 요녀 난교의 꾀임에 빠져 조유현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설강의 계교대로 유배를 보내자 그 유배가 끝나고 돌아오는 때로 되어 있다. 그리고 조씨 가문 사람들이 운산으로 내려간 후로도 경사에 남아있는 자손들이 매일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오고 또 그들을 통해 매일 경사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완전한 은거의 공간이기 보다는 명분상의 은거의 공간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현몽쌍룡기> 연작의 서술자가 도성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운산’이라는 공간을 <소현성록> 연작으로부터 받아들여 은거지로 설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11) <완월회맹연>에서 주인공 가문의 세거지(世居地)인 태운산을 묘사할 때도 와룡탄, 유리를 밀친 듯한 평지 등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소현성록> 연작의 ‘자운산’을 묘사하는 어휘들과 유사하다. <소현성록> 연작의 ‘자운산’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대표성과 상징성을 드러내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현성록> 연작에 묘사된 자운산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 처지에 따라 성공을 꿈꾸는 공간으로, 적절한 품위를 유지하며 조정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공간으로, 또 세력이 극에 달했을 때는 타인에게 배타적인 공간으로 기능하며 자신만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자운산'이라는 공간이 지닌 이와 같은 측면 중 조정과의 거리와 배타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수용, 변용한 것으로 보인다. '운산'은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서 퇴사를 거론하며 물러날 수 있는 공간이자 경사의 소식을 매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전략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운산'과 동일하다. 그러나 배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운산'에 비해 조금 더 유연한 측면을 보이는데, '운산'이라는 공간에 수용되는 사람들의 범위를 보면 알 수 있다.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조씨 가문 일원들을 중심으로 딸들까지 자운산에 거주하게 하면서도 악을 행했던 사돈 김환의 자운산 출입에 대해서는 냉정한 모습을 보여 '자운산'이라는 공간의 배타성을 보여주었다. 반면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조씨 가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자신의 가문에 악행을 저질렀던 설강의 가문까지 수용함으로써 더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공간으로서의 '운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물론 조씨 가문의 이러한 포용력은 퇴사 혹은 은거를 빌미로 한 세력의 규함으로 볼 수도 있다. <현몽쌍룡기> 연작에서 조씨 가문 사람들은, 영화가 극에 달해서 복이 떨어질까 걱정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겸손을 내세워 가문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태부인 이하 조기현, 유현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이 '운산'으로 이주한 시점도 이들의 영화가 극에 달한 시점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퇴사하면 조정에서 일을 감당할 재목이 없다고 주변인들이 걱정을 하지만, 조씨 가문에서는 가문의 안위를 위해 퇴사를 결심한다. 그러면서 가장 젊은 명천, 명윤 등을 조정에 남겨두어 황제의

일을 돕게 하겠다는 명분을 세운다. 그리고 당시 조정에서 한창 활동하며 나라일을 돕던 양인광, 설강 등과 동반 퇴사하여 ‘운산’에서 새롭게 그들의 공간을 조성한다. 겉으로는 겸손함을 내세우고 또 은거를 원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성상이 아라사미 한고의 쇼하와 쇼렬의 공명 ㄱ”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고려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충(忠)보다 먼저 고려된 가문의 안위나 효(孝)에 대한 입장을 통해 ‘가문주의’에 대한 작가의 시선을 읽을 수 있으며, <소현성록> 연작과 달리 이미 안정된 기반이 있는 가문이 그들의 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처신과 선택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모델로서 의미가 있다. 이는 정치 현실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삶의 거처를 옮기는 행동과는 또 다른 것으로써, 꼭 정치적인 불화나 위기의 상황이 도래하지 않아도 가문의 영구적인 안위를 위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문의 영구적인 안위를 작품 내에서 지속적으로 걱정하는 만큼, 운산에 은거했던 조씨 가문은 다시 조성의 유언에 따라 최종적인 은거지를 천태산으로 옮기게 된다. 이는 <소현성록>에서 대대로 자운산에 은거하다가 송(宋) 왕조가 망하자 조씨 가문도 그 대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결말을 변형하여 수용하면서도 역사에 조씨 가문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게 된 내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①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스정을 춤지 못하여 말을 갖치느니 벽운산이 오러 이실 곳이 아니라 텃태산 산쉬 명려하고 도뢰 머리 가히 세상을 폐홀지라 가히 치스하고 가권을 비의 시러 상류로 흥하여 텃태산의 가 시절을 피하여 만흔 즈손을 보전하고 성은을 맞춘니 저바리지 말고 나아가 혼가지로 다시 송도를 중흥케하라 <조씨삼대록> 40권.

②진초 낭공의 죽순이 대대로 싸혀나 면면부절하니 진실노 기특흔지라  
신중으로브터 휘중 흠종의 망하고 강왕이 금교의셔 중흥하시미 이 곳 고종  
이시니 제 각각 지취히시 달나 문달을 구치 아닌는 차는 오히려 턴태를 직희  
고 직절충냥을 겸발하여 스군보국지심이 잇는 차는 세상의 다시 느니 조시  
제인이 영쾌 재미히더니 철목이 진의게 망하고 조시 제인이 절사하니 여러  
히오 충렬이 대대로 니러는지라 진초 낭공의 선견이 만리를 예탁하여 명쾌  
신기하니 엇지 천고대장뷔 아니리오 <조씨삼대록> 40권.

위 인용문 ①은 조성이 자손들에게 ‘운산(벽운산)’을 떠나 ‘천태산’으로  
갈 것을 유언하는 장면이며, 인용문 ②는 조무와 조성 사망 이후 조씨 가  
문의 상황에 대한 서술이다. ②의 뒤에는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조씨  
가문에 관한 이야기가 <조씨삼대록>의 형태로 세상에 전하게 된 내력을  
짧게 덧붙이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자운산 소부리는  
<소현성록> 연작의 독자적인 공간을 작품에 차용하면서도 자운산 소부  
가 지녔던 한계점을 인식, 그것을 극복하는 나름의 방법을 고안했던 것으  
로 보인다. <소현성록>의 소씨 가문이 겉으로 고상하고 고결한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제대로 된 은거지를 정하지 못해  
결국에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으로 인식<sup>12)</sup> 된다면, <현몽쌍룡기> 연작  
의 운산은 공간에 대한 묘사는 <소현성록> 연작의 자운산을 따랐지만,  
실제 도성과 멀리 떨어지지 않아서 정치적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현실

12)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운산’을 묘사하면서 “근처의 인개 즐비흔디 다 촌민이  
오 스테후의 복거흔 재 업더라”라는 구절을 넣고 있는데, <소현성록> 연작의 작가가  
15대까지 자운산에서 소경의 후손들이 살았다는 내용을 덧붙였지만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송 왕조가 멸망할 즈음 소경의 자손들도  
흔적이 없어졌다는 내용을 수용하여 ‘자운산’의 은거 공간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다시 천태산으로의 은거를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적 공간으로 ‘운산’을 변화시키면서도 배타성 극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 2.3. 화소의 계승과 재편

<소현성록> 연작의 서두에는 처사 소광이 자녀가 없어 밤낮 근심하자 그의 처 양부인이 석씨와 이씨를 첩으로 얻어 후사를 잇게 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sup>13)</sup>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도 화씨, 영씨, 설씨 세 명의 첩이 작품 첫머리에 등장한다. 그런데 본부인인 위부인은 물론 이들 첩들도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긴 하지만,<sup>14)</sup> 조숙이 첩을 두게 된 이유나 첩을 들인 주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단지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도 이들 처와 첩이 한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조숙이 꿈에서 두 마리 용을 본 후 위부인이 2명의 아들을 낳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13) 처시 팔터 독조로 일신이 경경하고 부뵈 서락 의디혀 나히 거의 삼십이로더 혼낫 골육이 업스니 듀야 슬허허거늘 양부인이 또흔 넘너허야 이에 대장군 석슈신의 첩녀 석과와 낭인의 녀야 니시틀 어더 두 미희로써 당부를 권하니 처시 스양티 아니코 다 통이허디 즈뵈 업숙헌디라 이네 또흔 조심허야 상공과 부인 셜기를 노쥬간긔티 허더라 수삼년이 디나디 두 미인의 잉티 돈연하니 처시 탄왈 이는 다 내 팔지로다 허더라 <소현성록> 1권.

14) 사뵈의 부인 위시 숙녀의 덕이 규뵈 대이의울 남죽하니 제랑복첩이 이시디 부인이 입스의 남은 풍치이서 식투허며 미야오미 업스니 삼희 우러〃 공경허물 노쥬긔치 허고 의양지정이 동축허더라 일희 화시 이희 영시 습희 설시 각각 일녀식 두어시디 오직 부인긔 닳도록 싱스흔는 경시 업더니 뵈년의 년싱 습너허나 스숙을 니을 일개 남의 업스니 공이 태평성시의 한가흔 지상으로 덕망이 도야를 기우리고 상룡이 빅뇨의 웃듬이며 처첩이 화우허여 가되 숙연하니 반점이 시름이 업고 고당의 학발 편친이 강건하시니 증즈의 대효로 밧들며 치의홍상의 녹네 슬하의 넘노니 적막흔 근심이 업스나 종스의 중흥과 일신후스를 의탁할 곳이 업스니 크게 우려허고 공의 모친 태부인이 크게 근심허야 두로 산천의 기도허며 음덕을 두터이 허여 혼낫 괴린을 비로더 위부인이 년이 스십이 거의로더 삼녀를 싱허고 다시 회잉이 망연하니 <현몽쌍룡기> 1권.



<소현성록> 연작에서처럼 후사가 없다고 해서 ‘첩’을 들이는 경우는 국문 장편소설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경우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sup>15)</sup> <현몽쌍룡기> 연작이 <소현성록> 연작과 매우 유사하게 작품 첫머리에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부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첩을 둔 상황을 그리고 있다는 점은, 첩을 통해 후사를 잇는 문제를 작품 내부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현몽쌍룡기> 연작이 <소현성록> 연작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이다.

<현몽쌍룡기> 연작에 등장하는 세 명의 서모가 <소현성록> 연작의 서모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웃음을 유발하는 활달하고 적극적인 면모가 <소현성록> 연작에서 보다 줄었고, 딸이지만 각자 자녀와 사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화·영·설 세 서모가 <소현성록> 연작에 비해 작품 내의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측면에서는 <소현성록> 연작의 서모와 닮아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로 소운성과 조무의 팔에 서모가 앵혈을 찍은 사건을 들 수 있다.

①성이 막음을 7다듬디 못하야 총명과 문니를 밋고 또 병셔의 쓰디 갈리여 문장이 열형데 등 웃듬이라 그 부친씨는 밋디 못하미 이 연피라 나히 십세에 니르러는 석패 데의 기운이 춤턴호를 보고 소기고져 하야 일”은 여러 오쇼져[들]롤 [풀]히 듀덤홀시 운성이 겨터 이시물 타 풀홀 내라 하니 성이 무심코 풀홀 낸대 석패 우김질로 싱혈을 덕으니 성이 급히 스스되 불셔 슬히 드러 옥비에 잉되 되였는디라 석패 대쇼왈 그더 하 사오나오니 싱혈로 보람하야 두고 부인을 엇기허리라 공지 홀 일이 업서 웃고 왈 늘근 할미 일 업거든

15) 송성욱, 「18세기 장편소설의 전형적 성격」, 『한국문학연구』 4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소, 2003.

청산 송하의 깃드려 만년이나 살거시어늘 엇디 이런 희롱을 호노뇨 석부인  
 이 즐왈 네 말을 이러듯 굴히디 아니코 조모를 욱호니 승상고 고희야 죄를  
 넘히리라 공지 사죄호고 서당의 와 다시곰 풀홀 보며 즐겨 아나 생각호되 내  
몸이 세상 괴남즈 대당부로 엇디 녀즈 싱혈을 디고 일신들 이시리오 호야 민 호  
 더니 홀연 씨듯고 쇼왈 석패 날을 보채니 내 혼 계궤로 더를 속이리라 호야  
 몸을 니러 안호로 드러가 일희당 동산의 올라 구버보니 석파는 업고 석파의  
 기른 바 쇼영이 난간 밧기 가 노니 쇼영은 석파의 외족이라 부피 구물호니  
 패 드러다 길러 종요로운 사름을 어더 맛디라 호니 나히 십이 세오 지피 절  
 세호더라 운성[이] 석파를 띄워 심등의 우서 굴오디 내 당 이 쇼영을 첩  
 사마 싱혈을 업시 호리라 몸을 느좌 난간의 니르러 쇼영을 넘히 씨 동산의  
 니르러 쇼영을 저허 왈 네 만일 소리 호야 발악홀딘대 부친피 고희고 너를 죽이  
 리라 쇼영이 소리를 못호니 싱이 깃거 친호를 밧고 당부 왈 네 싱심도 말을 누설  
 티 말나 내 타일의 널로써 금차향널을 삼으리라 설파의 크게 웃고 풀홀 보니 싱  
 혈이 업는디라 <소현성록> 5권.

②일 호 은 화시 잉혈을 가져 여러 으시비를 주점호더니 낭공지 곶희 셋거늘  
 화시 희희를 즐기니라 농홍다려 팔을 니라 호디 공지 본디 쇼활호디라 무심코  
 팔을 니거늘 화시 잉혈을 호억이 직으니 공지 더경호여 급히 빠스디 옥비의 잉되  
 찬연호여 지 호 아니 호는디라 …… 츠시 농홍이 비상의 주점을 직히고 크게 분호  
 여 생각호디 당뵈 으녀의 주점을 비상의 두고 엇디 일시나 견디리오 너 취쳐호를  
 기다리면 오히려 삼스년이나 되리니 일개 미인을 어더 비상주점을 업시호고 인  
 호여 쇼성지널의 메오미 쾌티 아니라 의시 이의 미츠매 곳치 누르디 못호여 가연  
 이 스매를 썰티고 후원 제녀당의 니르니 이곳은 텃지 공의 풍도를 아롭다이  
 너기사 쇼향 년쇼미창 오십 여인을 스급호시니 승상이 성은을 스양티 못호  
 야 후정 십여간 집을 서러 저 제창등을 쳐호야 잇게호매 제창 등이 제녀당의  
 쳐호여 혹 탄가도 호며 혹 춤도 추고 향기로온 말과 홍군취삼은 주란화각의  
 바름을 조춘 나뭇기며 띄옥소리 징 호여 사름의 춘흥을 발호고 슈정넘은  
 풍경을 못 니기여 서로 브더쳐 쇼리 낭 호더라 …… 이에 (수앵을 : 필자)

있그러 친밀하여 이성지친을 밋고 유세 왈 니 비록 당즈실시나 너를 속이디 아니  
리니 네 날을 직회고 다룬 호걸을 섬기디 말나 타일 부모기 알외고 맛당이 금차  
지널의 두리라 우왈 니 너를 심각흔죽 썰를 타 이곳의 니르리니 네 츠후 완월덩  
못고지의 디령하라 설파의 크게 웃고 팔을 니여보니 주뵈 흔적이 업는디라 환희  
하여 느려오니 형스의 넘나고 능녀 흥미 이긋더라 <현몽쌍룡기> 1권.

인용문 ①은 석파가 소운성의 팔에 앵혈을 찍은 사건에 대한 서술이고, ②는 화파가 조무의 팔에 앵혈을 찍은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소운성과 조무는 둘 다 호방한 무인적 기질을 지닌 방만한 인물로 각각의 작품에서 묘사되고 있는데, 석파와 화파는 그러한 성격을 지닌 인물을 놀리기 위해 각각 소운성과 조유현의 팔에 앵혈을 찍는다. 이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예문의 밑줄 그은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두 작품이 매우 닮아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역시 <현몽쌍룡기> 연작이 <소현성록> 연작으로부터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운성은 석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석파가 팔처럼 키우던 소영을 겁탈하고 조무는 수앵을 겁탈하는데,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석파가 소운성을 위해 이 일을 함구함으로써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지만,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조무가 지속적으로 수앵과 만나는 것을 아버지 조숙에게 들킴으로써 수앵은 답을 넘어 달아나고, 조무는 조숙에게 매를 맞게 되며, 또 성격이 호방한 조무에게 어떤 인물이 배필로 적절할 것인가를 근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석상서의 외손녀인 정씨가 대화에 오르게 된다.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간단하게 4면 정도의 분량으로 서술되었던 사건이,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43면에 걸쳐 서술되었는데, 이는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가 <소현성록> 연작에서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사건을 확대하여 수용하면서 그 사건을 독자적인 에피소드로 끝내지 않고 사건 전개를 매끄럽게

하는 데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다.

그러나 작품 전반적으로는 <소현성록> 연작에 비해 서모들의 기능이 축소되었는데, 작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시키면서도 이들 인물을 작품 내에 계속 등장하도록 한 것에는, <현몽쌍룡기> 연작이 첩을 두어 후사를 잇는 화소와 입양을 통해 후사를 잇는 두 가지 이야기의 경우를 통해 종법제 정착과 관련한 과도기적 양상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면서 대를 잇는 문제와 관련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해볼 문제를 제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후사 문제와 관련하여 <현몽쌍룡기>를 과도기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가권 승계의 문제가 보편적인 18세기 소설과는 다르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한 <현몽쌍룡기> 연작의 입장은 가권 획득을 위해 형제끼리 다투는 화소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김현과 김환 형제가,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양계와 양옥설, 소경수와 소연수 형제가 가권 계승과 관련하여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세 경우는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김현과 김환이 친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가권을 놓고 다투고 또 형이 빼어난 동생을 시기하여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생물학적 선후에 따라 장자권을 계승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을 생각하게 한다. 양계와 양옥설의 경우 양계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부족한 자신을 대신해 사위인 조성을 통해 가계를 잇게 하고 재산을 모두 물려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부터 갈등이 비롯된다. <현몽쌍룡기>에서 양옥설과 조성을 없애려고 갖은 모해를 하던 양계는 결국 반역죄로 사망하고 그의 아들 양인광이 대를 잇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양계와 양옥설의 갈등에 대해 “요순의 사례를 들어 자신의 후사를 사위인 조성에게 맡기겠다는 양임의 말은 재산이나 봉사권을 사위에게 상속하지 않는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관행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작품의 후반부에 설정된 부자간의 살육극과 그로 인해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부자지의를

폐하는 것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사실 반영적 측면보다는 양소저에 대한 모해를 유도하기 위해 설정된 소설적 허구가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6)</sup>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양계라는 악인을 설정한 이유를 조씨 가문 내부 인물이 양소저를 해하게 되면 조씨 가문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외부 인물을 통한 고난을 그려야 하는데, 정숙한 양소저가 가족이 아닌 다른 남성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양소저에 대한 모해는 조씨 가문으로 시집 온 금선 공주에 의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양계가 양소저를 모해하는 사건의 핵심은 결국 가권의 계승에 있다. <조씨삼대록>이 늦어도 18세기 중반 이전에는 쓰였다는 선행연구<sup>17)</sup>에 따를 때, 그 전편인 <현몽쌍룡기> 역시 18세기 중반 이전에는 쓰였을 것이므로 외손봉사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시대적 상황과 배치되는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sup>18)</sup> 양계와 양소저의 갈등과는 반대로, <현몽쌍룡기> 연작에는 소경수와 소연수 형제의 갈등도 등장하는 데 가권을 놓고 벌이는 이들 형제의 갈등은 18세기 장편소설의 전형적인 성격에 근접한 것이다. 후사가 없어 형의 아들을 입양했는데 뒤늦게 아들이 태어난 경우 파양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가권을 노리던 소연수와 그의 어머니 구부인은 소경수와 그의 부인 조자염을 제거하기 위해 악행을 저지르나 결국은 회과(悔過)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16) 박일용, 「현몽쌍룡기의 창작 방법과 작가의식」, 『정신문화연구』 26권,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2003, p.45.

17) 조용호, 「조씨삼대록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8, pp.10-13 참조.

18) 종법제나 주자가례의 정착이 17세기 말에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볼 때(김경미,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 『한국고전연구』 13집, 2006.) <현몽쌍룡기> 연작이 창작된 시기에도 가권계승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존재했을 수 있다.

<소현성록>연작과 비교하면 <현몽쌍룡기> 연작은 첩 두기 회소를 수 용하거나 외손봉사의 가능성을 내비쳐 갈등을 유발하면서도, 또 입양을 통한 장자 계승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가권 승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소경수·연수 형제의 갈등처럼 본격적인 18세기 장편소설에 등장하는 형제 갈등이 묘사되기도 하지만 <현몽쌍룡기> 연작을 본격적인 18세기 국문 장편소설로 보지 않는 이유는, 이 작품의 핵심 갈등이 장자를 통한 가권 승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장자의 가권 승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현몽쌍룡기> 연작의 결말을 보면 이 작품은 출생 순서를 기준으로 장자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위주로 가권 계승을 하고 있어 본격적인 18세기 국문 장편소설보다는 초기 국문장편소설인 <소현성록> 연작과 더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제도의 변화로 인해 가권 승계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긴 하지만 아직은 그것이 가정 내부의 모든 문제를 유발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악인형 여성 인물들이 자신보다 뛰어난 첫째 부인을 시기하고 또 그들의 자녀까지 해치는 등 악행을 서슴지 않지만 그런 악행의 목적이 전적으로 자신의 자녀가 장자권을 획득하고 자신이 제 1부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만 있지는 않다. <현몽쌍룡기> 연작의 악인형 여성 인물들은 남편의 균등한 사랑 혹은 따뜻한 관심만 있어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작품에서 종종 이야기 되는 가장으로서의 치가법(治家法)이나 남편의 아내에 대한 도리를 언급하는 부분<sup>19)</sup>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조무와

19) 양부인과 덩비 혼가지로 안죽다가 초연을 듯고 탄왈 원너 남즈의 나시 듯겍고 순설 이 능흐를 알니로다 너의 남시 뵈박하던 거동을 헤아리면 듯느 니 므음이 셔늘흐니 남시 한이 업시리오 부뵈 남으로서 윤의를 미즈니 정의 합흔죽 지극히 친흐고 정의 불합흔죽 도로 남이라 저 남시는 요조숙네라 비록 너를 원치 아나나 정의 어디로서 나리오 혼듯 가부의 위엄과 장부의 호령으로 미스를 뜻더로 흐랴 물고 이제는 형실을

조성이 각각 4명과 3명의 부인을 두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현몽쌍룡기> 연작에서 조유현을 모해하던 악인 강옥연이 정씨, 이씨, 조씨, 경씨 등 네 명의 부인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조화롭게 하나의 가정을 이루며 사는 모습을 보고 회과하는 부분을 통해서도 악인형 여성 인물들이 악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물론 개인적인 성품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지만, 남편의 균등한 애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공간과 시간적 배경의 차용, 화소의 수용과 변용 등의 양상 고찰을 통해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가 <소현성록> 연작을 독서하고 그 경험을 새로운 소설 창작에 활용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수용과 변용의 과정에는 <현몽쌍룡기> 연작을 창작한 작가의 서술시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수용과 변용의 양상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바탕으로, <현몽쌍룡기> 연작의 서술시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침묵이 흐고 덕을 닦가 유현의 개심수행함을 범측하라 너는 나와 궂티 못 듯겉지 못  
하니 남시를 업척홀 물이 나지 아닛는지라 각골지한을 유즈의 맛츠미라 남부의 흉장  
이 여홀여속하니 이곳의 빗비 오고져 아니키는 인정상시니 우리는 실노 제 원을  
쫓고즈 흐노라 <조씨삼대록> 19권.

니부 레뷔 턴버 노흐시를 보미 조곰도 두려 아나 정식 주왓 폐히 혼궂 정궁 허물을  
크게 칩망하시나 처음 성상 대접이 박호샤 정궁 분노를 드르시고 후궁의 총이 성호여  
적첩지분을 직회지 못호여 궁녀의 일이 여츠하니 슬프다 필부지기도 가옹의 눈떨고  
귀머지 아니면 치가를 못호는지라 더욱 통솔스히호여 만승턴지리오 폐히 룬의 중  
흔 거슬 아르시고 흐믈며 선데 간택호신 바로 아시결발의 적은 허믈노 폐치 못홀지니  
슈히 곤위를 회복호시고 궁녀의 춤간호여 정궁을 도모코져 호는 후궁을 스스호여 왕  
법을 정히 호쇼서 <조씨삼대록> 6권.

### 3. 수용 양상을 통해 본 <현몽쌍룡기> 연작의 서술시각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소현성록> 연작에서 수용한 부분들을 작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서사를 확대하고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서도 말했듯이 소황후는 허구 인물인데,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허구 인물 소황후를 차용하면서 작품 내에서 담당하는 소황후의 기능의 초점을 이동시켜 서사의 확장을 꾀했다. <소현성록> 연작에서 소황후는 가문의 영화의 극단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면, <현몽쌍룡기> 연작에서 소황후는 색을 탐하는 황제에게 균등한 애정의 필요성에 대해 간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조유현과 설강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일종의 원인 인물로 기능하기도 하며 조유현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소황후가 중심 가문의 인물이기 때문에 황후 책봉과정 그 자체가 유의미 하겠지만, <현몽쌍룡기> 연작에서 소황후를 작품 내에 수용한다면 그것은 소황후 책봉 사건에 간여하게 된 중심 가문 인물의 활약상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소황후는 전작으로부터 차용하고 황제를 미혹하는 허난교라는 인물을 새롭게 창작함으로써 황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자연스럽게 조씨 가문의 중심인물인 조유현이 얽혀들게 하여 가문 내부에서만 벌어지던 모해 사건이 가문 외적으로까지 확대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유현이 유배를 가게 됨으로써 조유현은 물론이고 그의 아내들도 악인으로부터 심한 모해를 받고 다양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가장이 가정에 부재함으로써 다양한 악행이 벌어지게 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상황을 마련하는 과정에 소황후와 관련된 정치적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소현성록> 연작으로부터 남성 인물의



팔에 앵혈을 찍는 에피소드를 수용하기도 했는데, <소현성록>에서는 앵혈이 찍힌 소운성이 석파에 대한 복수의 일환으로 소영을 겁탈하는 사건으로 간략하게 묘사되었다. 반면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화파에 대한 복수심보다는 사내대장부로서 팔에 앵혈을 간직한 채 살 수는 없다고 판단한 조무가 기생인 수앵을 겁탈함으로써 앵혈을 없애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 사건에 이어 지속적으로 조무가 수앵과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조숙에게 들킴으로써 사건이 확대된다. 그 사이에 아버지에게 들킨 조무가 수앵을 조부 밖으로 도피시키고 후일 첩으로 들이겠다는 언약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수앵이 한동안 작품에 등장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다. 앵혈을 없애려는 조무가 수앵을 만나게 되는 사건은 ‘수’라는 글자와 관련이 있는 여성과 천정 인연이 있다는 신인의 예언을 실현하는 것이면서, 조성과 대비되는 조무의 성격을 보여주는 기능도 하고, 방일한 조무와 정숙한 정씨의 혼인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도 한다. 이는 소운성이 소영을 겁탈하는 장면을 서술한 후 한동안 소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다가 후에 석파의 건의로 소영을 첩으로 들이게 되도록 구성했던 <소현성록> 연작의 사건 전개보다 한 층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소현성록> 연작에 서술된 각각의 사건이 인과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일일은’, ‘홀연’ 등과 같은 어휘를 통해 불쑥 새로운 사건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면, <현몽쌍룡기> 연작은 하나의 사건에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가 <소현성록> 연작의 작가에 비해 서사적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며 기법적으로 좀 더 세련된 소설을 창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역사적 사실을 작품에 수용하

면서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허구적 사건과 결합하여 매끄럽게 작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창작 방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광황후 폐위와 관련하여 실제 역사에서는 간관인 범중엄(范仲淹)과 재상인 여이간(呂夷簡)이 대립을 하다가 광황후 폐위를 찬성하던 여이간에 의해 범중엄이 지방으로 쫓겨나게 된다. <현몽쌍룡기> 연작에서 조유현은 범중엄과 같은 간관의 직책에 있지는 않지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광황후 폐위를 찬성하는 설강과 대립을 하다가 유배를 가게 된다. 역사적 사실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지방으로 쫓겨나는 대신 유배라는 상황을 설정하기는 했지만, 범중엄과 여이간의 대립이라는 역사를 작품 안에 수용하여, 실제 황제 앞에서 조유현과 설강이 설전을 벌이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태종의 황위 계승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작품 내에 자연스럽게 수용한 것을 들 수 있다. <소현성록> 연작에는 태종 황제가 형인 태조와 조카 덕소를 살해하고 황위에 오른 사건에 관한 언급이 몇차례 등장한다.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이 사건을 ‘야반 축영사’라 부르는데, 작품에 이 사건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을 보면, ‘야반 축영사’에 관해 간략하게 서술한 후 소경이 정치에 대한 뜻을 잃어 매사 소임을 동관에게 미루고 자운산에서 지냈기 때문에 ‘사기’에 이름이 없다는 서술을 하고 있다.<sup>20)</sup> 이 사건이 언급된 이후에도 소경은 지속적으로 국가 일에 간

20) 이적의 상이 태조 덕수를 죽이[시]니 참정이 차아 탄왈 만승의 괴업이 비록 크나 지친골육 잔해호를 풀넉[기]티 하니 데 곳 태조의 태조로 타일 덕을 니을 재라 그 죽으미 명 〃 히 알니로다 불승 혼호되 도당의 구둔 팔왕 등도 홀 일이 업는디라 드디여 [야반] 축영사도 쓰시 듯고 문득 마음을 세상의 머므르디 아니코 벼슬을 불의에 [기] 못호여 소임의 나아가나 범스틀 동관의게 미리 보내고 종일토록 입을 여러 시논과 정스틀 다스리디 아니하니 비록 벼슬이 높고 명망이 둥흐나 과연 스기 가온대는 일홈이 업스니 그 활연 청아호를 가히 알니러라 <소현성록> 4권.

여하고 있으며 그의 아들들도 정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태조에서 태종으로 이어지는 황위 계승 과정에서 벌어진 비도덕적인 사건과 도덕적 완고함을 추구하는 소경의 인품을 간략하게 대비하는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야반 축영사’와 관련하여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명현공주와 혼인한 소운성의 입을 빌어 다시 한 번 이야기 하는데, “공주는 식량의 막음으로 일회 거동이니 님군과 동성을 죽이려 하는 문호 의셔 상당하<sup>21)</sup>였으므로 공주와 동락할 수 없다는 발화 내용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경, 소운성 등은 국가의 녹을 먹으며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도덕과 예교를 중시하는 소경이 가장 큰 부도덕성 앞에서는 침묵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를 선행연구에서는 소부의 명예와 도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타 가문보다 우위를 점하게 하기 위하여 황실조차 윤리적 결함을 가진 문호로 설정한 것으로 보았다.<sup>22)</sup> 그러나 이는 소부의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소부가 지닌 도덕적 결함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자운산 소부라는 배경 설정에서 드러났던 배타성 못지않게, 소부가 자신들에게는 유리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여 가문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이중적 모습을 지닌 집단으로 비춰지게 하기도 한다.

반면에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가내에서 악행을 벌이다가 벌을 받게 된 금선공주가 조무와 조씨 가문을 포함하기 위해 거짓으로 황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지어내는 장면에서 금선공주의 입을 빌어 ‘야반 축영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만든다.<sup>23)</sup> 이 장면은 진중 황제를 비롯

21) <소현성록> 6권 37면.

22) 지연숙, 앞의 논문, 2006, pp.78-79.

23) 조위 신을 띄워호오미 구슈갯티호여 작일의 무고히 니르러 설분티 못호여 최 김 낭 상궁을 등형을 더어 명지경각호고 쏘 궁노를 무고히 버히며 신을 만단구육호으나 다만 신 썬이면 그러나 엇지호리잇고 우홀 축범호더 혼군이요 첩의 참언을 들고 너 갓

한 황실의 정통성을 비난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지만, 금선공주가 거짓으로 지어낸 딸이라는 형식을 빌어 서술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작가의 입장을 작품에 반영하면서도 조무나 조씨 가문 일원들의 정치 참여가 모순 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구성되었다.

비록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가 송사(宋史)에 대해 정통한 지식을 갖추지는 못했지만,<sup>24)</sup> <소현성록> 연작으로부터 역사적 사실을 수용하면서 그 내용이 작품 속 인물이나 사건과 잘 결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조씨 가문의 도덕성이 의심을 받지 않도록 구성한 점들을 볼 때, 소설이 교훈을 전달하거나 주인공 가문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정의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식의 도덕 교과서와 같은 이야기만을 담은 독서물이 아니라, 허구와 사실의 적절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오락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작품을 서술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자신이 살던 시대의 인식 변

---

흔 찰녀를 니게 맞져 나의 눈의를 희짓고 심화를 도도니 엇디 통흔치 아니리오 비록 황야라 칭하나 디터로 불인지귀라 그 동상을 죽이고 죽하를 시하고 셔 〃 황태 되여시 니 무어시 광치 이시리오 니 밍세하여 찰녀 금선을 죽이고 설분하리라 호오니 츠마 인즈의 뜻의 견디디 못홀 배오 인신의 귀의 듯디 못홀 배오니 윈 폐하는 신의 정을 살피샤 국은 저바린 죄를 다스려 쳐티호쇼셔 <현몽쌍룡기> 8권.

- 24)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가 송사(宋史)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조숙을 송의 개국공신 조빈(曹彬)의 후손으로 설정했으면서도, 소황후 사후 책봉된 조황후를 구체적으로 형상화 하지 못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조황후는 조빈의 손녀인데,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이씨의 쇼황휘 곤위를 누리온 지 십여 년의 봉하시니 상이 크게 비뚱하시고 도애 거인하여 텃디 진동하고 군현이 후의성덕을 추모하여 슬위 아니리 업더라 …… 나라히셔 황후를 책봉하시고 대사턴 하하시니”(〈현몽쌍룡기〉 36권.)라고 하여 소황후 사후 책봉된 황후의 구체적인 정보를 언급하지 않았다. 선조를 무혜왕 조빈으로 명시하고 조황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가문의 영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가문 내 여성의 황후 책봉을 다루고 있는 다른 국문 장편소설과 다른 점으로서, 만약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가 지식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라면 어떤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화를 작품에 반영하고, 일방적으로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에 대해 작가 스스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독자들에게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시함으로써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권 계승이라는 문제를 다양한 형태로 묘사한 것이 그 예인데 가권 계승의 다양한 양상은 작품 안에서 능력위주의 가권 계승, 입양자의 가권 계승, 외손봉사의 가능성 등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현몽쌍룡기> 연작이 창작되었을 당시는 이미 제도적으로 종법제가 시행되었지만,<sup>25)</sup> 제도의 시행과 사회 관습의 변화에는 시간적인 괴리가 있었을 수도 있다. 입양을 하여 장자를 세운 후 적자가 태어났을 때 그 양자를 과양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재산 상속에 있어서 남녀의 불평등이 확실해지면서,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들여서라도 대를 잇게 한 사회 제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을 것이다. 또 외손봉사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은 능력위주의 가권 계승을 지지하는 <현몽쌍룡기> 연작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권 계승 방법이었을 것이다. 딸에게 가권을 계승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아들 보다 뛰어난 사위를 통해 가문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양임의 의중은 조씨 가문의 대(代)가 장자인 조무의 아들 기현으로 이어지지 않고 능력이 뛰어난 운현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구성한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측면이다. 물론 양임이 외손봉사의 가능성을 내비친 결과, 작품에서는 외손봉사의 문제 보다는 위기감을 느낀 양세가 자신의 누이 양옥설과 그의 남편 조성을 모해하는 측면이 더 부각되었고 또 결국에는 외손이 아닌 친손 양인광을 통해 대가 이어지는 결말을 취하고 있으므로 외손봉사를 작품 내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가 자신이 살던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작품에 담고 그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을

25) 이회근, 『주제로 보는 한국사』, 고즈윈, 2005, pp.138-153 참조.

제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전작의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소현성록> 연작에서 소경의 둘째 부인인 석씨 소생 소운성이 가권을 계승했던 결말과 달리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조무의 첫째 부인인 정씨의 셋째 아들 운현이 가권을 계승하게 함으로써 덕이 있지만 하면 둘째 부인이라도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소현성록> 연작의 가치를 계승하지 않고, 첫째 부인의 가내 지위를 보장하고 인정하려 했다. 이는 일부일처제 사회를 사는 작가 자신의 원비에 대한 입장 표명인 동시에 국문 장편소설의 주된 향유층인 상층 여성들의 의식<sup>26)</sup>을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

#### 4. 결론

이상 <현몽쌍룡기> 연작을 대상으로 이 작품이 <소현성록> 연작으로부터 수용한 요소들을 시·공간적 배경, 허구적 인물, 화소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지명도가 있는 <소현성록> 연작을 독서하고 독서의 경험 중 일부를 자신의 작품을 창작하는데 활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소현성록>이라는 제명을 작품에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소현성록> 연작을 읽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새로운 작품으로 접근했으며, <소현성록> 연작을 읽은 독자들에게는 전작으로부터 수용되고 변화된 지점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적극적으로 독서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었을 것이다.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소설 작가이기 이전에 <소현성록> 등의 국문 소설을 읽은 독자이기도 한데, 어떤 한 편의 소설을 읽고 그 내용 중 자신

26) 지연숙, 앞의 논문, 2001 참조.

이 관심이 가는 부분을 수용하고 또 그것을 변용시켜 자신의 작품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현몽쌍룡기> 연작은 이 작품을 창작하기 이전에 이 작품의 작가가 읽었던 소설들에 대한 간접적인 비평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하다.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소현성록> 연작으로부터 역사적 허구 인물인 소황후를 차용하여 서사를 확대하는 과정에 활용했으며, 도덕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으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도덕적 판단보다 가문의 안위를 우선에 두어 도성과 거리를 두고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추구했던 소씨 가문을 대표하는 자운산이라는 공간의 속성을 일면 이어받으면서도 배타성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하기도 했다. 방 일한 남성 인물의 팔에 앵혈을 찍는 것과 같은 흥미 위주의 화소와 함께 본격적인 18세기 국문 장편소설에서는 보기 드문 첩 두기 화소를 수용하고 능력위주의 가권 계승을 옹호하면서도 다양한 가권 계승의 양상을 제시하여 독자들을 설득하려 했다.

수용과 변화의 지점들은 <현몽쌍룡기> 연작의 서술 시각을 대변하는 것들인데,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소현성록> 연작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었던 사건들을 수용하여 서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의미나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기도 했으며,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개연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했다. 교훈을 나열하는 식의 구성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건이 다른 하나의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고안했으며, 역사적 사실 또한 허구적 작중 인물이 경험하는 사건과 연결되도록 서술하고 있었다. 동시에 변화하는 국문 장편소설 독자층의 의식을 반영하여 가권 계승 등과 같은 문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다양한 사례 제시를 통해 독자를 설득하려 했으며, 일부일처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성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원비(元妃)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시

켜나갔다.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초기 국문 장편소설보다 노골적이지 않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려 시도했으며, 소설의 교훈서적 측면과 함께 오락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면 제시적 서술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부분을 확대하고 대화 장면도 단순한 환담에서부터 긴장감을 부여하는 장면까지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초기 국문 장편소설보다 확대된 분량을 서술해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고찰은 과제로 남겨둔다.

<현몽쌍룡기> 연작에는 <소현성록> 외에도 다른 초기 국문 장편소설에 대한 독서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몽쌍룡기> 연작이 <소현성록> 연작으로부터 수용한 요소들과 변용한 지점에만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지만, <현몽쌍룡기> 연작의 창작방식이나 서술시각, 주제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초기 국문 장편소설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역시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김경미,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 『한국고전연구』 13집, 2006, pp.5-28.
-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pp.1-258.
- 박일용, 「<현몽쌍룡기>의 창작 방법과 작가의식」, 『정신문화연구』 26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pp.31-53.
- 徐連達·吳浩坤·趙克堯, 『중국통사』, 중국사연구회 옮김. 청년사, 1989, pp.1-734.
- 송성욱, 「18세기 장편소설의 전형적 성격」, 『한국문학연구』 4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3, pp.5-28.
- 이희근, 『주제로 보는 한국사』, 고즈윈, 2005, pp.1-328.



-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pp.1-353.
- 조용호, 「조씨삼대록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8, pp.1-146.
- 지연숙, 「<여와전> 연작의 소설비평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1, pp.1-210.
- 지연숙, 「<소현성록>의 주변과 그 자장」, 『한국문학연구』 4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3, pp.29-63.
- 지연숙, 「<소현성록>의 공간 구성과 역사 인식」, 『한국고전연구』 13집, 2006, pp.49-89.
-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창란호연록〉·〈옥원재합기연〉·〈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pp.1-276.

## ABSTRACT

## The Accepting Aspects of the &lt;Sohyeonseongrok&gt; Series and The Narrative Perspective in The Series of &lt;Hyeonmongssangryonggi&gt;

Hur, Soon-Woo

They who study the Korean full-length novels recognize some of the novels are connected each others but the exact informations in terms of both which ones are influenced others and how the past-readers felt after reading the Korean full-length novels at that time are very restricted. And therefore it's a very meaningful study that compiling and studying the exact informations through the related novels.

The series of <Hyeonmongssangryonggi> show how the series are accepting and changing the characters, backgrounds, events of the <Sohyeonseongrok> series. But in the series of <Hyeonmongssangryonggi>, but we can't find the direct mentions about <Sohyeonseongrok>. These ways of creation maybe reminded the past-readers of the former stories that they had read and helped them to compare through the related novels. So finally we can say that these ways of creation are a part of the novel critics, because the writers of these kind novels tried to show their feeling about the novels they had read.

The writer of the series of <Hyeonmongssangryonggi> seems to try to expand the narration of <Hyeonmongssangryonggi> series with the character of So-empress taken from the series of <Sohyeonseongrok>. And The writer of the series of <Hyeonmongssangryonggi> seems to take over the meaning of the place Jaun-mountain(紫雲山), which represents the So family, and try to overcome that the So family's exclusion of the other family.

The accepting and changing portions are representing the narrative perspective of the series of <Hyeonmongssangryonggi>. At first, the writer

of <Hyeonmongssangryonggi> series is trying to accept some contents in the series of <Sohyeonseongrok>, and then, trying to improve some range of probability in the series of <Hyeonmongssangryonggi>

In other words, the writer of <Hyeonmongssangryonggi> series seems to consider both aspects, some lessons and some amusing entertainments.

**Key Words** <Hyeonmongssangryonggi>, <Sohyeonseongrok>, accepting aspects, narrative perspective, expanded narration, probability, historic portion, fictional portion.

|                     |
|---------------------|
| 논문투고일 : 2008. 3. 30 |
| 심사완료일 : 2008. 4. 20 |
| 게재확정일 : 2008. 5. 4  |